

하나님을 두려워 함

신학박사 조 덕운

[신명기 10:12-13]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오직{주} 네[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주} 네[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 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2:4-5]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14:6-7]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1.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하는 이유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친구라 부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할 진정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시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로마 군인들과 헤롯의 하수인들과 대제사장의 수족 등을 두려워 하지 말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권력을 두려워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차가 경광등을 키고 정지 신호를 보내면 우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찰관이 나를 체포하여 구금시킬 권한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면 몇년 살다가 자유의 몸으로 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이유로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인 하나님을 훨씬 더욱 두려워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환란 기간의 후반에 천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때가 될 것인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어 이 땅에 없으니, 마지막 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때는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일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에는 대 홍수의 재앙의 시작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복음 선포의 날은 예수님 재림 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함께 멸하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며칠 앞으로 임박한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말의 시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징벌로 보낼 권한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 인생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소위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인생의 지혜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책을 쓰고 방송에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높은 지성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 사는 지혜는 한시적이고 사망을 너머 영원의 시간에는 가치가 없는 한시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2.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성경에서 읽어 보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그 답을 얻기 바랍니다. 먼저 노아의 모범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노아 시절의 홍수로 모두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 남았으므로 우리 모두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시절에는 한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큰 홍수로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기 120 년 전에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어 받아 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던 때에 큰 홍수가 올 것을 믿고 홍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해줄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비도 안오는데 그 커다란 배를 만들어 무엇에 쓰겠느냐고 조롱하고 힐난했으며,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믿고 동참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했던 참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 홍수 이후의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참된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남이 이해해 주지 않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두려움으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는 의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 희생하실 작정을 미리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7-10]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눈물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분이시지만 아들로써 자신을 낮춰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고 말씀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몫을 다하심으로써 인간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승천 휴거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왕국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신명기 10 장의 구절을 우리가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 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율은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의인은 또한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사탄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적 존재이어서 자녀들은 부친을 두려워 하면서도 그분의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따라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법도와 질서가 수립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3. 다스리는 자의 필수 덕목: 하나님을 두려워 함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 중에 다음과 같이 다스리는 자의 덕목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계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통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 사회의 통치자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리더의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우선 그는 의로운 자, 즉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회개하여 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개인 언행,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했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빛이 드러나는 다스림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왕국에서 리더로 지명한 자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시편 2 편은 종말을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으로부터 약 3 천년 전에 씌어진 예언적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 이전의 지도자들보다 신약 시대에 나라들을 다스리는 세계의 리더들이 읽고 경고를 받아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께 두려움으로 와서 복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1-12]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시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6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7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9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10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라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대상은 이교도들의 왕들과 치리자들, 즉 오늘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예언적 경고입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개신교 국가들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 격인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의 가치관과 이념을 자기들을 얽매는 굴레와 결박이라고 여기고 이를 벗어 던지겠다고 반 기독교, 반 하나님 정책과 이념을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 학계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극좌파들이 우익 크리스찬 진영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3 천년 전에 시편 2 편을 쓰신 분이 이 모습을 미리 예견했다고 봅니다.

4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비웃고 진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좌절될 것입니다 [12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민족들을 다스릴 왕중의 왕을 세웠노라, 그리고 그 왕이 이교도 국가들을 모두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마치 토기

그릇처럼 철장으로 부숴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2 편의 예언은 2 천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재차 예언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15-16]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16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요한은 종말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분께서 민족들을 칼로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거부하는 통치자들을 칼과 철장으로 죽이고 그들의 권세를 파괴하실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심으로써 모든 믿지 않는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 그들의 피가 아카바만의 바닷물을 붉게 만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님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실 최고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세계 정권을 수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대통령들, 수상들, 장관들, 장군들, 판사들, 지사들, 시장들 등 모든 지도자들은 주 하나님의 이러한 종말의 심판 계획을 두려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책임을 맡은 통치 행위를 하나님의 원칙과 법도에 따라 해야 할 것이며, 나라의 제반 정책과 법률, 제도를 성경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들의 행위들을 모두 내려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주 예수님께 화친의 키스를 하고 [12 절], 크리스찬들을 보호하며, 당신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옹호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크게 두려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비과 은혜가 중단되는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노를 회피하는 지혜를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